



강 간

鄭 東 哲

엄격한 의미에서 강간이란 성립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법적 해석에 관해서는 여기서 따질 형편이 아니다. 사람들은 강간을 빙자한 화간(和姦)이 오히려 더 옳은 해석이라고도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여자가 의식을 갖고 거부하는 한 삽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간이 성도착증인가 하는 점에 회의가 일때도 있다. 적어도 방법이야 어떻든 남녀 성기의 도킹을 통해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도착증이 아닌 것처럼 정의된 경우가 있었으니 말이다. 이미 밝혔던 바 있지만 여자 섹정광도 역시 성교행위를 벗어난 도착된

오르가즘을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은 분류상 같은 계보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성적 욕망의 강도(強度)가 변칙적으로 났다는 뜻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만한 이유는 있다. 강간을 습관적으로(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물론 우발적 행동에 있어서 까지도 그들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미숙하여 충동적 욕구를 억제·조절할 능력이 없는데다 일상적 인간관계의 곤란에서 오는 자기상실을 보상하려는 심적작용이 겹쳐져 있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어쩌면 오르가즘보다는 한 여자를 정복했다는 그런 상징적 만족이 더 큰 심리적 요구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일까? 법적으로도 강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자가 여성기(女性器)에 완전 삽입이 되지 않아도 또한 사정(射精)이 없었다 하더라도 엄연한 죄로서 성립된다.

근래 성범죄(性犯罪)가 증가일로에 있다. 그 실효를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가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강간을 일삼는 미숙아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는 따져 볼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개의 강간자는 25세 전후의 저소득층이다. 그들 부모 자신의 정서적 성숙도도 또한 낮아 불안정한 데다 연약하거나 아니면 주정뱅이

의 아버지를 갖고 있는 수가 많다 따라서 이미 파괴된 가정적 분위기에서 편친(片親) 슬하에 올바른 가르침이랄 것도 없이 멧테로 자라나는 그런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강간자는 대개 18~25세 사이의 여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통계를 말하고 있다. 소아 기호증이란 도착증같이 아주 어린아이를 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뜻밖에 나이든 여자를 침범하는 때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지능은 낮아 저능아의 지수를 갖는 수가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성 박약이 대다수이다. 외양은 좋은편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적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강간이란 사실에서 짐작가듯 그들은 힘이 아니고서는 상대를 구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결함이 있다는 동기가 이런 신체적 모습과 관계되리라.

강간은 남자의 전유술만은 아니다. 여자와는 달리 남자는 생리적으로 성적 흥분 즉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기되어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 강간을 당한다는 말이 없을것 같지만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것은 여자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한 삽입이 곤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화간보다는 강

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어린 소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최대한의 가능한 수단에도(저항하는) 불구하고 이루어 졌을때 강간이라고 하듯 어린 소녀를 위협하여 성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는 무관할때 역시 강간이 되는 것이다.

한편 강간과 관련되어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멸정한 남자에 곤욕을 보이는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녀 자신의 죄책감과 남성에 대한 복수심과 관계가 있다.

결국 강간은 계획적이거나 우발적 여부를 따질것 없이 습관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미숙한 성격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가정의 올바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재론을 불허한다. 게다가 어린 10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30~40대의 여자가 갖는 성적 유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놓게 할까? 사회가 갖는 성모랄이 또한 중요할것이다.

<필자=경희의대 외래교수

정신과전문의·의박>



새벽에 난아이

나는 새 환자의 産前기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전의 임신에 대해 물었다.

『첫애기는, 언제 출산하셨나요?』

그 환자가 대답했다.

『1970년예요.』

『그 애기의 몸무게는 얼마였음

니까?』

『6 파운드 3 온스요.』

『10달을 채우셨나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당신의 아기가 조산이었나요?』

『네?』

답답해진 나는 크게 소리쳐 물었다.

『그 애기가 일찍 태어났냐구요?』

그 여자는 이제야 알아 들켰다는듯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예~. 새벽 5시에 태어났어요.』